

## 다이히잔 간논지 절과 붓카이 쇼닌

무라카미 중심부에 있는 다이히잔 간논지 절은 일본의 마지막 불교 미라 또는 즉신성불인 붓카이 쇼닌의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붓카이 쇼닌은 1828년 곤도 쇼지로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6세부터 무라카미 북쪽 야마가타현 유도노산에 있는 진언종 사찰의 견습생이 되어 고행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유도노산은 환생을 기다릴 필요 없이 현생에서 부처가 되기를 열망하는 수행을 지지하는 난해한 진언 밀교의 한 분파의 중심지입니다. 즉신성불이 되기를 열망하는 신도는 진언 교리에서 먼 미래에 깨달은 세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언되는 미륵보살의 도래를 기다리는 동안 육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세에서 부처가 되려면 자기 미라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은 최대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잠재적 즉신성불은 부패하기 쉬운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극도로 엄격한 식단을 따라야 했습니다. 곡물이나 지방을 섭취하지 않고 야생 식물, 잎, 나무껍질, 뿌리 등으로 연명했습니다. 체내 수분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옷나무 수액으로 만든 독성 차만 마셨는데, 이 차는 내부 장기를 천천히 코팅하여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때가 되었다고 느끼면 수행자들은 돌로 된 작은 관 안으로 들어가서, 연꽃 위에 앉아 호흡과 심장 박동이 멈출 때까지 깊은 명상에 들었습니다.

붓카이는 1903년 제자들에게 3년 후 시신을 발굴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1868년에 시신 발굴을 불법으로 제정한 법에 의해 시신을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이 법은 즉신성불 관행을 막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미라는 1961년 연구자들에 의해 발굴될 때까지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붓카이 쇼닌의 시신과 그가 묻힌 관은 다이히잔 간논지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